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주일 예배 봉사위원

	11. 22	11. 29	12. 06
대 표 기 도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정용현 집사
헌 금 위 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 내 위 원	이수현 집사	이수현 집사	유미경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영의 양식으로 삼시다(렘38~52장, 갈1~6장)
2. 수요일예배-매 주 수요일 오후 7시 Zoom으로 예배를 드립니다(18일부터 시작)
3. 청년 성경 모임-매 주 금요일 오후 8시 Zoom으로 모입니다(20일부터 시작)
4.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주일예배는 정해진 시각,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44장 다같이
 기 도 Gebet 김영희 시무권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출 20 : 8-11(구p112) 김영희 시무권사
 설 교 Predigt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46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박재기 집사

넘어짐의 미학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다가 넘어지는 일은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방향하다가 넘어지는 일이 나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생을 더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에서 넘어짐은 넘어짐조차 아름답습니다.

스포츠 신문에서 Steve Young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Steve Young는 San Francisco 49ers팀의 quarterback(QB)으로 유명한데, 기사에서는 그가 미국에서 공을 안고 가장 잘 뛰는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한 스포츠 잡지를 보니 거기에는 Steve 선수를 미식축구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이 넘어지는 선수로 소개했습니다. 워낙 잘 뛰다 보니 그를 견제하는 선수들이 많게 마련이고, 달리는 내내 태클이 끊이지 않았습니 다. 그러니 4야드(약3,6m)마다 한 번씩 넘어진다는 통계가 나왔던 것입니다. 잘 뛰는 사람은 넘어지기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다른 선수들의 태클을 당해 넘어질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빛어져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자녀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의 노래 / 이동원 목사
 (지구촌침례교회 원로)

*** 사랑은 스스로 자유를 억제함으로 더 큰 자유를 누린다.**

- Thomas á Kempis(독일 사상가) -